

Next Generation Networking Innovator

ubiQuoss IR Presentation

March 2018



Disclaimer

본 자료에 기술되어 있는 (주)유비쿼스(이하 "회사")의 재무정보와 경영실적, 사업현황 등은 2017년 기말 결산 기준의 내용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미래의 불확실성 및 특정 위험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와 그에 따른 트렌드, 시장 변화에 대한 추정에 기인하여 지표들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결과는 회사의 전망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므로 법적 책임 소재의 입증 자료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공시 위반에 해당되는 정보의 기재는 없으며, 코스닥 공시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ubiquoss.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회사 개요

회사소개
주주현황
회사연혁

사업 소개

Carrier시장 인터넷 서비스 방식
인터넷 망구조와 당사 제품군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공급
당사 제품 소개

Investment Highlights

Vision
사업전개 방향
Global 사업
네트워크의 고도화
5G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공공시장 사업확대
R&D 투자
배당 정책

Appendix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회사 분할



회사 개요

회사소개
주주현황
회사연혁

회사 개요 | 회사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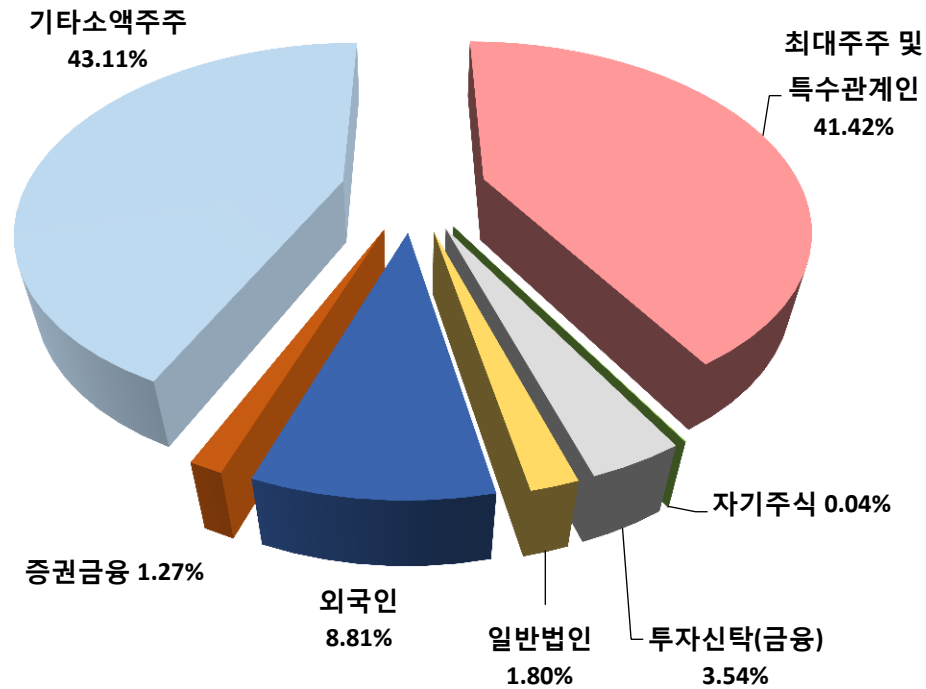
회사명	(주)유비쿼스 ubiQuoss Inc.		
회사설립일	2017.03.01 (분할기일) / 2000.07.11 (분할전회사 설립일)		
상장일	2017.03.31 (인적분할 재상장) / 2009.01.23 (분할전회사 상장일)		
대표이사	이 상 근		
주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8 수원공장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83 		
매출액/자본금/신용등급	883억 (2017년 네트워크사업부문) / 25.6억 / BBB+		
임직원수	166명 (2017.12.31)	R&D / Eng : 85명	
		Manufacturing : 50명	
		Management : 11명	
		Sales & Marketing : 20명	
주요 제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2/L3 Switch (Access, Aggregation, Edge & Core level) FTTH (1G/10G-EPON, DPoE, G-PON) LTE Backhaul Switch Advanced DSL Solution (VDSL2, G.hn, DPU) 		
주요 계열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ubiQuoss홀딩스 - 분할존속회사 - 자본금 80.4억 - 지주사업 및 신규사업,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ubiQuoss USA - 홀딩스 100% - 자본금 \$30만 - 해외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ubiQuoss Investment - 홀딩스 100% - 자본금 200억 - 신기술사업금융업



▲ (주)유비쿼스 판교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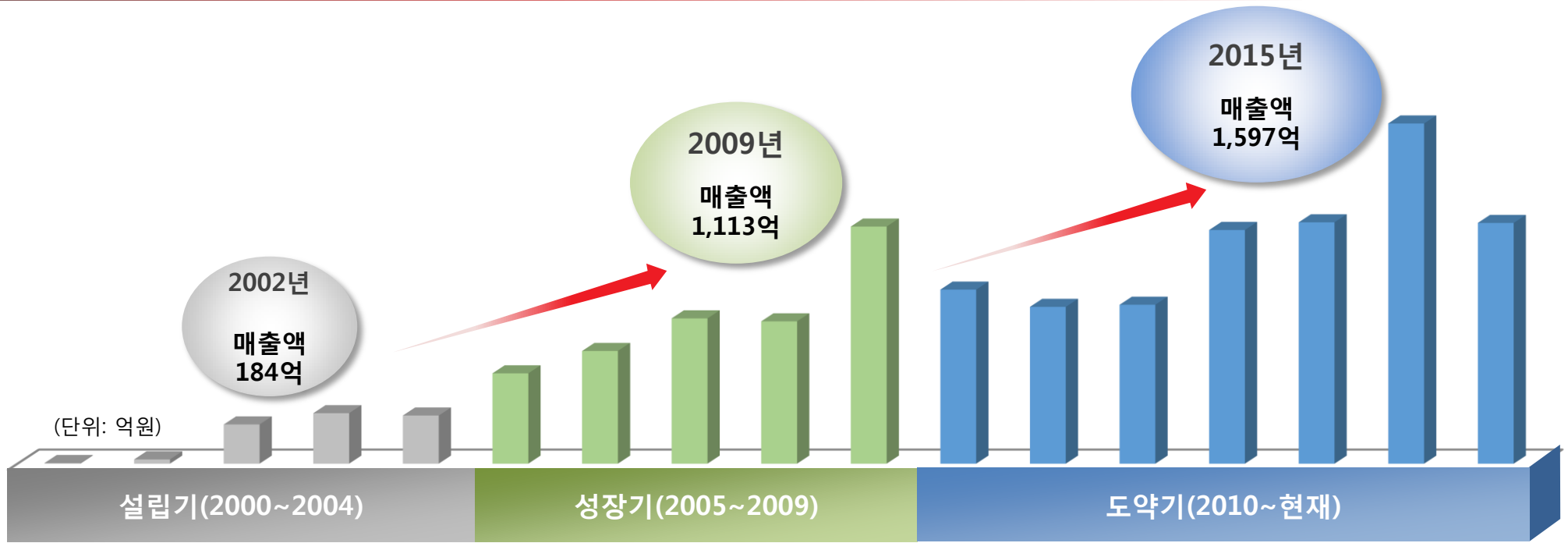


▲ (주)유비쿼스 수원공장



주요주주 현황 (2017.12.31 기준)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이상근 (최대주주)	1,338,502	26.12%
특수관계인	783,908	15.30%
(주)유비쿼스 (자사주)	2,204	0.04%
국민연금공단	88,692	1.73%
한국증권금융	65,283	1.27%
CHALKSTREAM INVESTMENT	62,481	1.22%
기타	2,782,885	54.31%
발행주식총수	5,123,955	100.00%



- 2000** - 회사설립(프리미어 네트워크)
- IMT-2000 기술협력 컨소시엄
- 2001** - 상호변경 ㈜로커스네트웍스
-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 매트رو 이더넷 스위치 국내 자체개발 성공
- 2002** - KTF VASS 시스템 개발
- 철도청 이더넷 스위치 공급
- 조달청 이더넷 스위치 공급
- 중국 WINS 7WAVE 공급체결
- 2003** - TL9000 인증 획득
- IP-VDSL 50M 개발완료
- KTF E1-IP system 공급계약
- 2004** - WDM-PON 개발
- 삼성전자 L3 switch 공급체결
- LG건설 L3 switch 공급

- 2005** - (주)유비쿼스로 사명변경
- 무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23억)
- 파워콤 광랜 사업 L2/L3 공급
- 2006** - KT Metro 집선 소형 QoS 납품
- 하나로통신 이벨리 집선 스위치 (소, 중형) 공급
- 2007** - BEST PARTNER OF THE YEAR 2007 (엑세스분야)
- LGP GE-PON 계약
- 2008** - 무역협회 회원 등록
- 무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46억)
- 코스닥 상장심사청구/통과
- 2009** - KT우수협력사 선정
- 2009년 매출액 1,100억원
- 코스닥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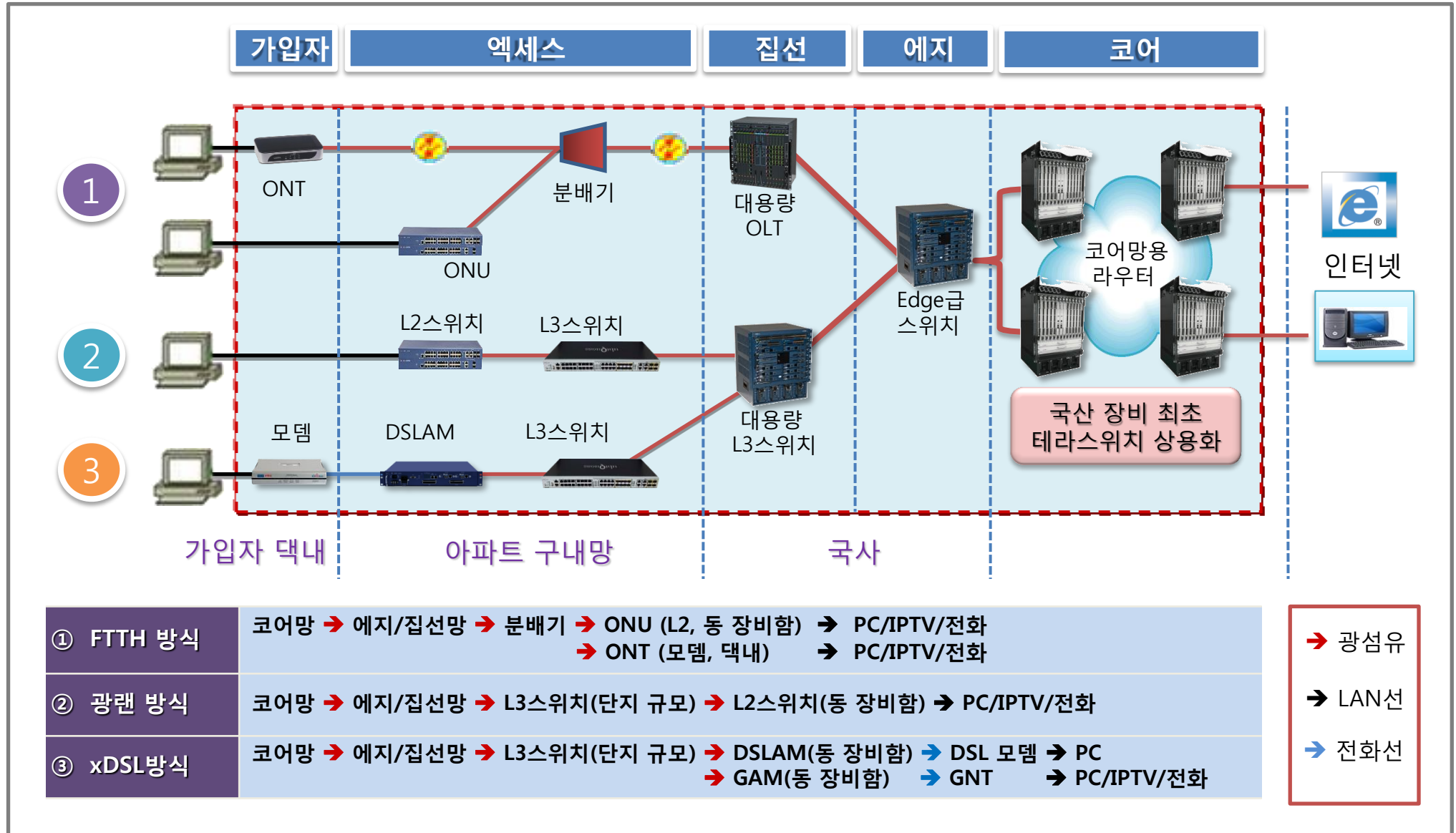
- 2011** - KT우수협력사 선정(연속 3년)
- PoE스위치, GES 개발
- 2012** - LGU+ 대용량 스위치(E7508) 공급계약 체결
- 기가인터넷 선도시범사업 협약체결(LG,KT)
- 2013** - KT 골드 우수협력사 선정
- 대용량 10G OLT 개발 상용화
- 한국수력원자력 망분리 사업 수주
- 2014** - ITU 전권회의 유선망 구축 (국산 장비 최초)
- LGU+와 새마을금고 전산망 고도화 사업 참여
- 2015** - LGU+ 4테라급 대용량 스위치(E8013) 개발/납품
- KT와 G.hn 기반 GiGA Wire 장비 상용화
- 2016** - 삼성전자 L2/L3스위치 ODM 납품계약 체결
- 신세계 I&C 총판계약 체결
- 2017** - 네트워크사업부문 인적분할, 코스닥 재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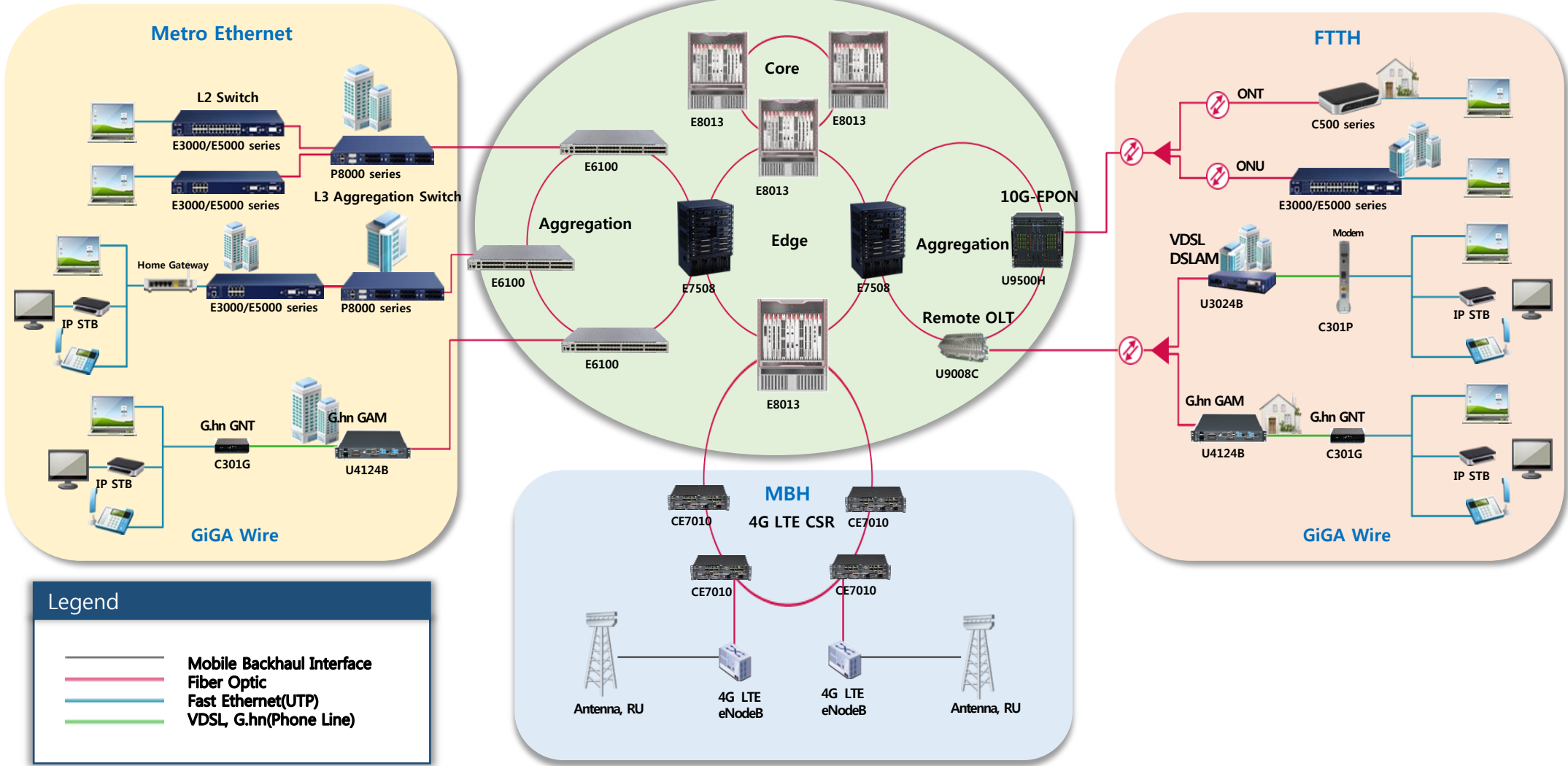
사업소개

Carrier시장 인터넷 서비스 방식
인터넷 망구조와 당사 제품군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공급
당사 제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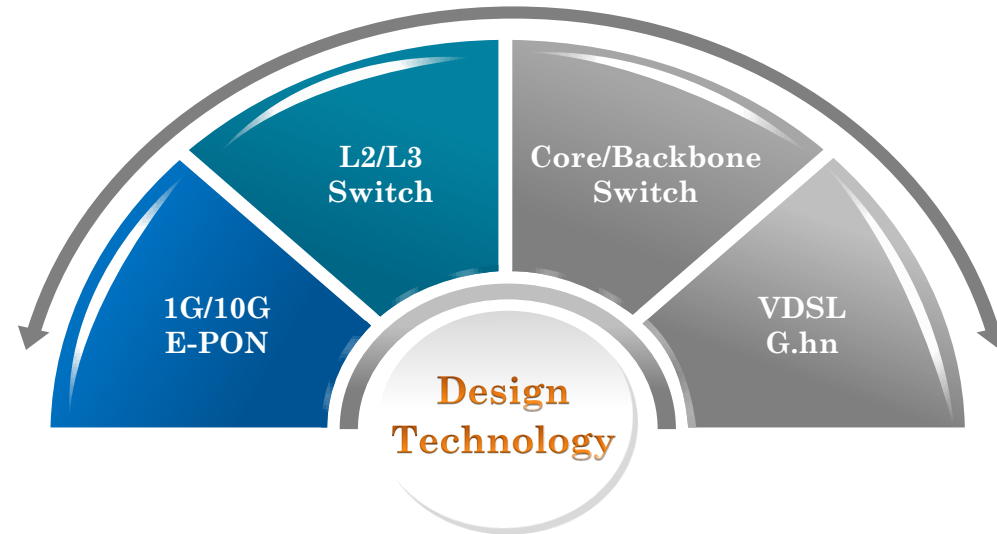
사업 소개 | Carrier시장 인터넷 서비스 방식



국내 업체 중 유일한 End to End Total Solution 제공



국내 1위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 전문 기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유지보수능력 및 안정적인 재무구조

대규모 사업 참여를 통한 기술적 노하우

국내 인터넷 통신사업자 및
주요 MSO사업자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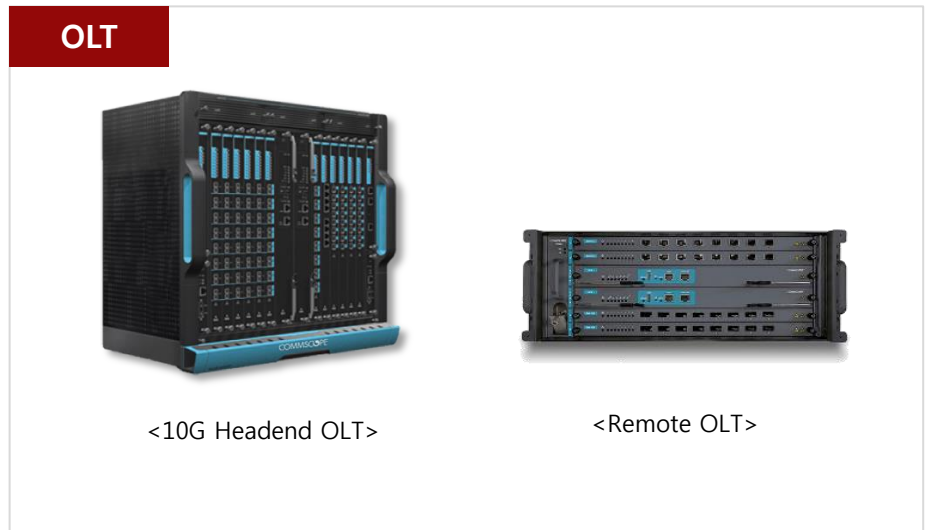
고성능의 하드웨어 설계능력

사업자와의 오랜 파트너십

국내 인터넷 통신사업자 BMT 통과

사업 소개 | 제품 _ FTTx Solution Group / DPoE Solution Group

- FTTx : 광케이블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 OLT/ONU/ONT 전 제품을 보유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인 Total Solution 제공
- DPoE : 케이블 망 구조에서 PON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
- DPoE 규격이 적용되어 있어, 케이블 사업자가 기 설치된 케이블 인프라의 교체 없이 고객의 Needs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사업 소개 | 제품 _ Switch Solution Group / DSL Solution Group

- 국내 최초 대용량 백본급 스위치, 데이터센터 스위치, 보안스위치, PoE 스위치
- 고객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Full Line up Switch Portfolio 보유

- DSL은 전화선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 세계 최초로 전화선 기반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G.hn 기술을 상용화

Core & 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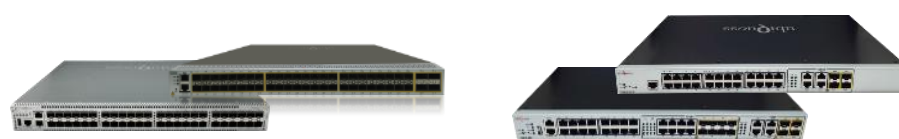
<4 Tera Core Backbone>

G.hn



<G.hn Access Multiplexer> <G.hn Network Terminal>

Layer 3



<10G aggregation L3 switch> <1G workgroup L3 switch>

VDSL2



<VDSL2 Access Multiplexer> <VDSL2 Modem>

Layer 2



<Enterprise L2 / PoE Switch> <Access L2 Switch>

FTTdP





•
•
•
•
•
•
•
•
•
•
•

Investment Highlights

Vision

사업전개 방향

Global 사업

네트워크의 고도화

5G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공공시장 사업확대

R&D 투자

배당 정책

“Global Small Giants” beyond “All IP Convergence”



“Global Small Giants”로 도약

- Global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Global Allied Company로 Positioning

“All IP” era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IP Connectivity”
- IP Core Competency 바탕으로 Seamlessly ICT 융복합 사업으로 확장 (SDN, 보안 등)
- Traffic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수요 (5G, UHD, IoT 등)

기업/공공시장 사업확장

- 기업/공공기관 시장 확대 (IDC·공공망 사업 등)
- 2020년까지 매출 350억 이상 확대

북미 MSO시장 Potential

- DPoE 기술을 활용한 북미 MSO FTTH시장 진입
- New Partner “ADTRAN”과 본격 궤도 진입
-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북미 MSO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점진적이나 Potential이 큰 사업

Carrier시장에서 M/S 유지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수요 변동은 불가피
- 사업자 최적화·차별화된 Value-added 제품군을 바탕으로 국내 1위 M/S 지속 유지
- Carrier시장은 당사의 공고한 사업기반

Investment Highlights | 사업전개 방향

기반사업

- 국내 주요 사업자 시장 60% 이상의 공고한 M/S 확보
- Beyond Access : Core/Edge Market으로의 사업 coverage 확장 및 성장 동력 강화
- 5G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 참여 (Backhaul & Fronthaul),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확대
- 지속적인 Traffic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 (1G/10G and above)

Enterprise 사업

- MSO, 건설사, 포탈, IDC 등 다양한 시장에 성공적 진입 및 M/S 확대
- 삼성전자, LG Ericson 등의 major vendor OEM 사업
- 주요 그룹사 네트워크장비 공급 (신세계 그룹 등)
- High Entry Barrier 극복 및 다양한 reference 확보에 따른 성장 가속화 기대

Global 사업

- DPoE based 10G-EPON 장비 북미 최대 MSO인 Charter 공급사로 선정
: 2017년 Trial & 본사업 추진, 2018년 북미 MSO사업자 FTTH서비스 규모 확대 전망
: 기타 Cablevision, Shaw 등 북미 MSO 시장 reference 확보
- Global Major Vendor 와의 사업 협력 Eco system 구축

미래 사업

- Industry 4.0의 핵심기반인 IP Connectivity 영역
: SDN, UHD, 보안, IoT, Smart Factory etc.
- ICT 융복합 사업
: IP Core Competency에 기반한 seamless한 진입 (SDN, 보안 등)

북미 MSO Cable사업자 통신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 이더넷(IP) 기술을 이용한 Carrier의 인터넷서비스는 고도화된 반면, Cable업체는 망 고도화 투자의 초기 상태
- Cable업체의 이더넷(IP) 기술인 DPoE 솔루션은 전세계적으로 당사 이외 3개 업체(Nokia, Sumitomo, Arris)만이 참여
-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1조달러 SOC 투자계획"을 발표, 건설, 토목 및 통신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예상
- 기존 CommScope는 광통신 케이블 회사로서 당사의 PON 제품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당사의 파트너십 변경요구에 합의
- ADTRAN이 북미 MSO시장을 타겟팅 하고 있는 3사(Nokia, Sumitomo, Arris)와의 사업권 인수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2016년 11월 당사와 새로운 형태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공동사업을 개시
- ADTRAN과는 북미 MSO 시장에 납품되는 당사 고유의 기술인 DPoE 솔루션을 활용한 당사 PON 제품에 대해서 상호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적으로 Binding



회 사 명	ADTRAN (ADTN - NASDAQ)
회사설립	1985년
사업영역	TPS서비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장비 공급
매 출 액	640M\$ (약 7,300억)
임직원수	2,000명 (2016년 기준)
자산부채	자산 667M\$, 부채 188M\$ (부채비율 28%)
자 회 사	29개 사

※ DPoE : DOCSIS Provisioning of Ethernet (DOCSIS 방식으로 EPON 호환이 가능한 기술)

※ DOCSIS : 케이블망 이용한 데이터통신 서비스 표준규격

서비스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성 확대

차세대 서비스의 변화

- **지상파 UHD**
 - 2017년 9월부터 지상파 초고해상도(UHD) 방송 개시
 -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통해서 시청 가능
- **가상현실(VR) / 증강현실(AR)**
 - 원격에 위치한 실제환경을 사용자의 위치로 가져오는 Teleportation이 가능
 - 현실에 가까운 실감환경을 제공하는 AR/VR 서비스 가능
- **클라우드 트래픽의 증가**
 - 2020년까지 전세계 클라우드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92% 차지 예정 [시스코 2015-2020 글로벌 클라우드 인덱스]
- **양방향 초실시간 서비스**
 - 사용자가 생각하는 순간 반응하는 초실시간 서비스 가능
 - 원격 의료 서비스, 공장 초정밀 자동화, 자율주행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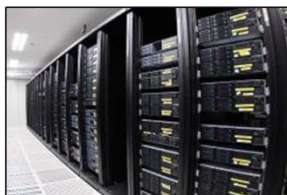
<UHDTV>



<가상현실>



<실시간 풀HD 의료 상담>



<테라 클라우드 서비스>



<유무선 기기 홈 콘텐츠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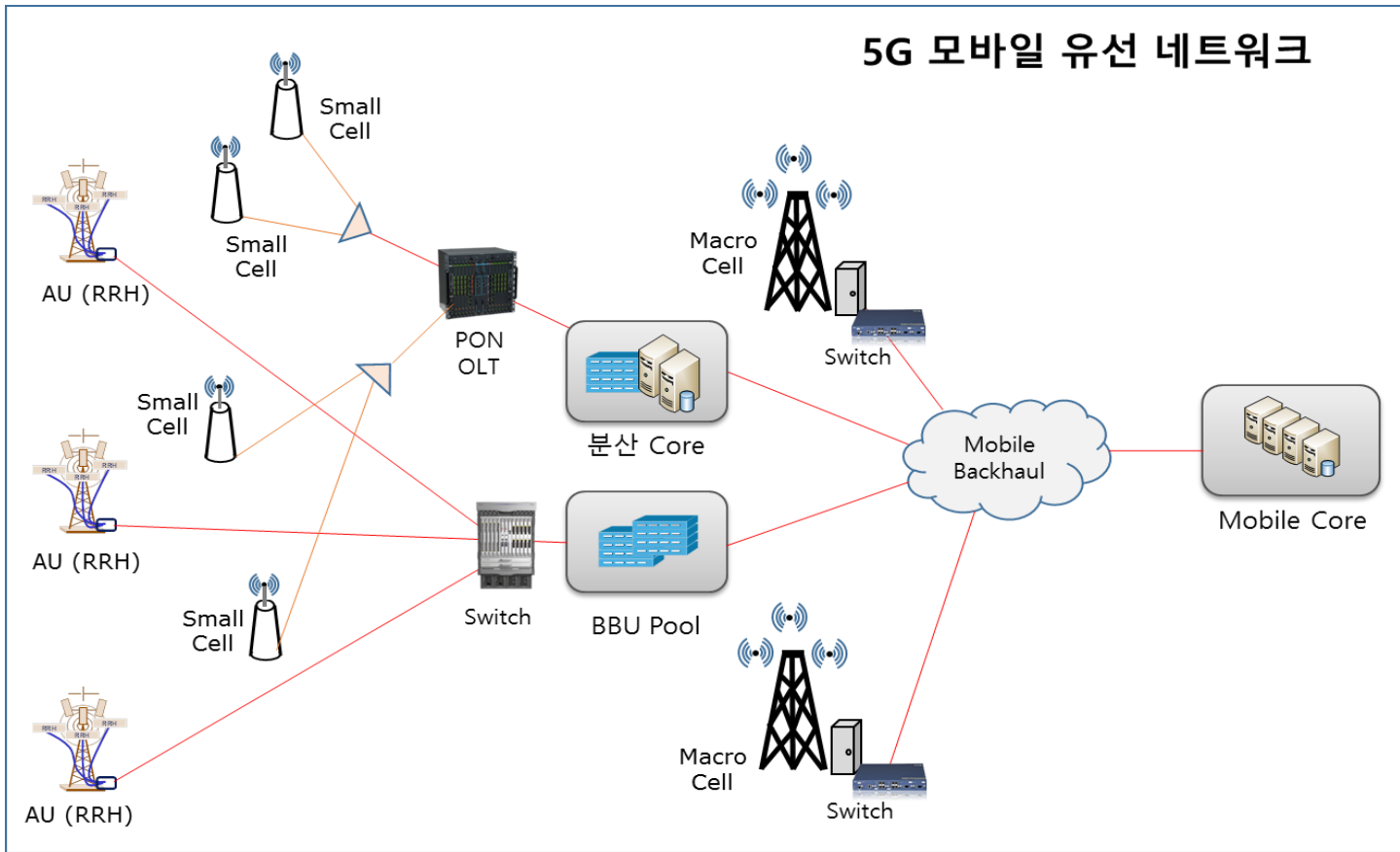
네트워크 고도화 요구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막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유선 인터넷, 이동통신, 방송망까지 새로운 네트워크 고도화가 요구**

- **유선인터넷 : 기가인터넷**
 - 기가인터넷 도입 확산으로 대용량 초고화질 콘텐츠 확산 가능
 - 1G 가입자 속도, 10G 트렁크 속도 확보를 위한 투자 증가
 - 정부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및 커버리지 확대 계획
 - 단기적으로 UHD 지상파 방송,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가 트래픽의 용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무선인터넷 : 5G로의 전환**
 - 5G는 28GHz의 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데이터 처리속도와 용량이 대폭 향상될 전망
 - ITU가 정의한 5G 이동통신의 총속 속도는 20Gbps 이상 (LTE 대비 200배)
 - 5G 이동통신망의 도입을 위해서는 5G 기지국 연결을 위한 고용량 유선 네트워크 투자가 필수적임
- **기업 네트워크 고도화**
 - 기업 네트워크의 보안성, 운용성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예상
 - 내부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네트워크 가시성 제공, 응용 트래픽 제어 등과 같이 지능형 네트워크로의 진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참여

- 5G는 사물인터넷(IoT), Connected Car,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미래기술의 핵심 인프라
-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KT의 5G 시범서비스
- 2018년 하반기 이후 5G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전망 (통신사업자들의 2019년 상용화 계획)
- 당사는 4G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5G의 Back-haul & Front-haul 네트워크 장비 공급 예정



- 대역폭 증가**
: 1Gbps 이하 → 25Gbps
- Cell 반경 축소**
: 기지국 수, 유선 네트워크 증가
- Macro-Cell과 Small-Cell 혼용**
: 선로 절감을 위해 PON 사용
- C-RAN 구조에 따른 **Front-haul 네트워크 변화**
: WDM → 패킷 스위칭 장비

고용량 고집선 장비로의 업그레이드 필요

Investment Highlights | 기업/공공시장 사업확대

기업/공공시장 사업확대로 통신사업자 중심의 매출구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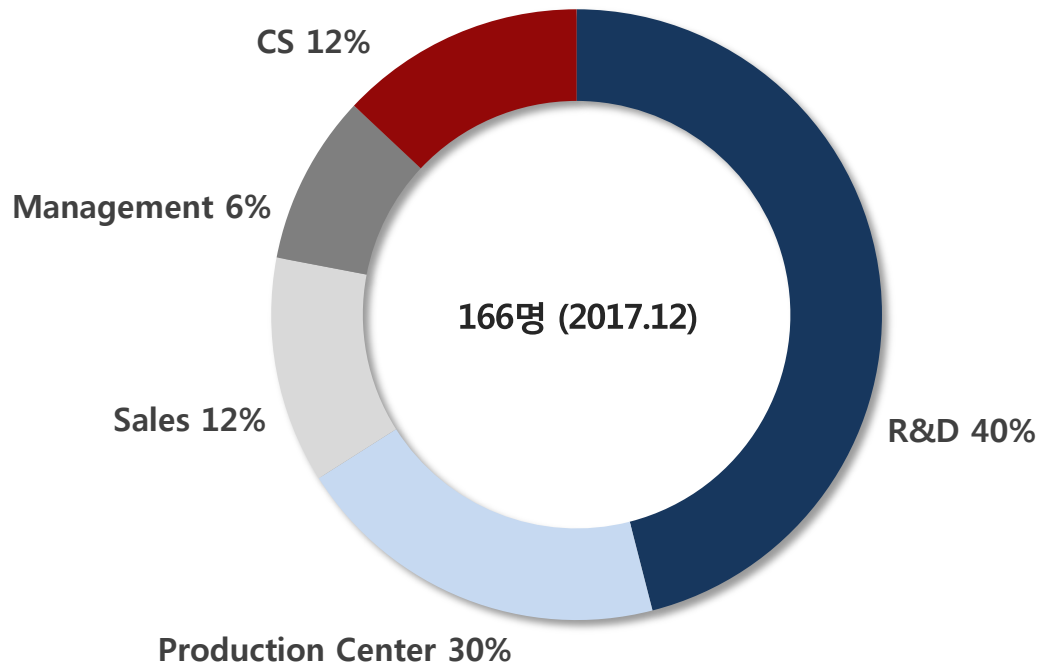
- 당사 ENT사업부의 매출액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사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00억	150억	215억	270억

- 외산장비업체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지만 기술력, 가격경쟁력, A/S 등의 강화를 통하여 시장 진입
- 시장 내 당사 제품의 사용빈도를 높이는 영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채널 확보에 노력
- Field Reference가 중요한 시장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대상으로 납품 추진 (삼성전자·신세계그룹 내 장비 구축)
- 국산장비에 대한 신뢰성 개선 및 Field Reference 확보에 따라 외산장비와 본격 경쟁 가능

MSO					
건설사					
파트너·공공기관					

적극적인 R&D 투자로 기술우위 확보



▪ 10% 이상의 R&D 투자

- ✓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 R&D 투자
- ✓ 신기술 개발 적극 투자
-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리더십 강화

▪ R&D 중심의 인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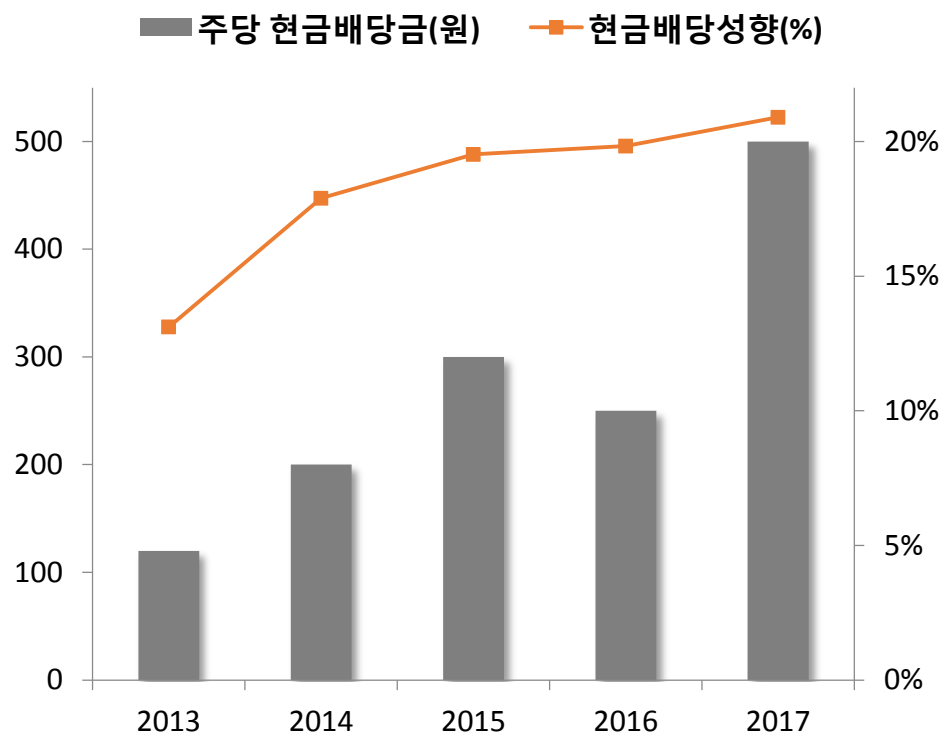
- ✓ 40% 이상의 R&D 인력 보유
- ✓ 네트워크 분야 최고 전문인력 구성

▪ R&D 개발 성과

- ✓ 특허 보유 현황 : 총 35건 (국내 29건 / 해외 6건)
- ✓ 제품 개발 현황
 - 테라급 대용량 스위치/라우터 개발
 - 미래 DSL 솔루션 개발(G.hn)
 - CE, DPI 장비 개발
 - 클라우드 가상화 최적화 스위치 및 SDN 개발

주주환원 정책으로 고배당 추구

- ▶ 2009년 상장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정책으로 배당을 실현 중
- ▶ 현금배당성향을 유지하는 배당정책 실행 중
- ▶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따른 배당정책 변동가능성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500	500
당기순이익 (백만원)	21,022	21,466	29,510	23,925	12,250
주당순이익 (원)	1,095	1,118	1,537	1,261	2,392
주당현금배당금 (원)	120	200	300	250	500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2,304	3,840	5,760	4,673	2,561
현금배당성향 (%)	11.0	17.9	19.5	19.8	20.9
시가배당률 (%)	1.6	2.3	2.5	2.3	2.1

주) 2013~2016년 배당관련사항은 분할전회사의 연결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2017년은 인적분할신설회사의 개별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Appendix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연도별 재무현황
2017년 경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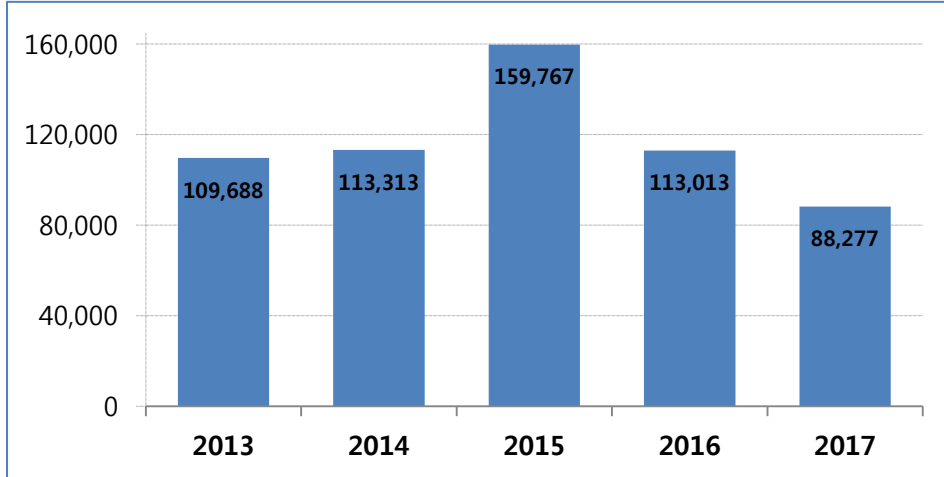
회사 분할

분할의 내용
분할의 배경 및 목적
분할전후 계열회사 현황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 연도별 재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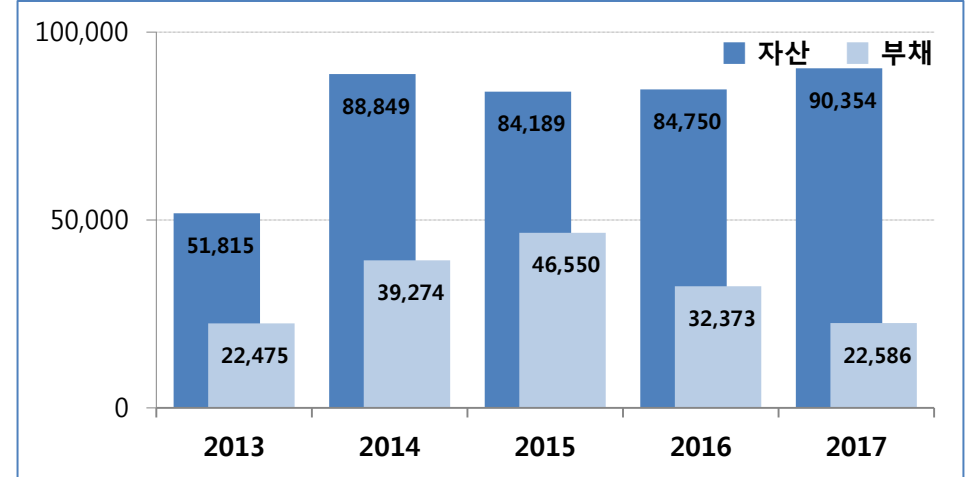
■ 매출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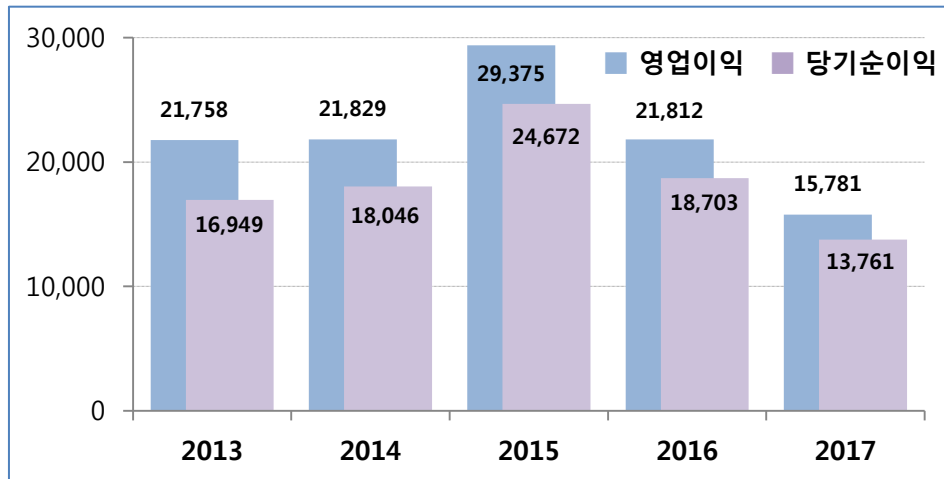
■ 자산 구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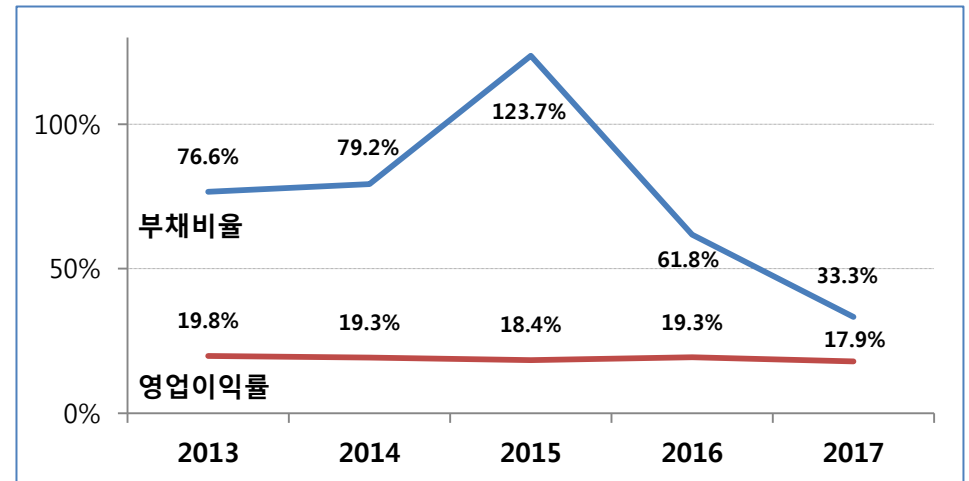


■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 부채비율/영업이익률



주1) 2013~2016년 재무현황은 회계법인의 분할재무제표 검토시 작성한 연도별 네트워크사업부문의 재무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17년 경영실적(누적기준)에는 분할전회사에서 발생한 2017년 1~2월 네트워크사업부문의 경영실적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 2017년 경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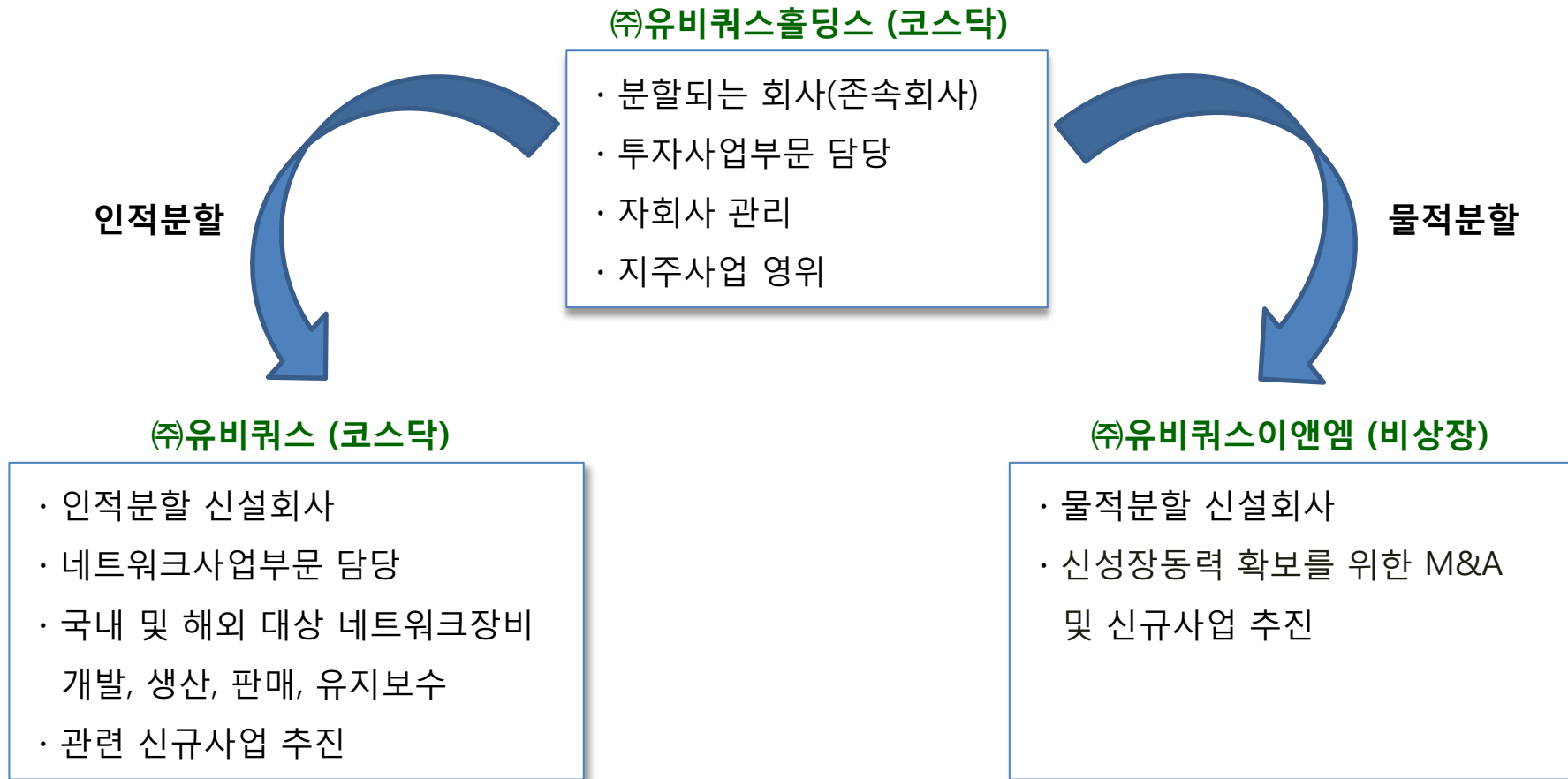
▣ 2017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 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적(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적(B)	YoY (B-A)	
매출액	18,636	22,450	19,179	28,012	88,277	31,100	27,445	24,619	29,848	113,013	△24,736	(△21.9%)
매출총이익	6,752	7,652	7,204	10,068	31,676	12,986	11,544	10,701	13,549	48,780	△17,104	(△35.1%)
(매출比)	(36.2%)	(34.1%)	(37.6%)	(35.9%)	(35.9%)	(41.8%)	(42.1%)	(43.5%)	(45.4%)	(43.2%)	(△7.3%)	
영업이익	2,930	3,256	3,307	6,288	15,781	5,425	4,760	5,355	6,272	21,812	△6,031	(△27.6%)
(매출比)	(15.7%)	(14.5%)	(17.2%)	(22.4%)	(17.9%)	(17.4%)	(17.3%)	(21.8%)	(21.0%)	(19.3%)	(△1.4%)	
경상이익	2,717	3,548	3,486	6,256	16,007	5,544	4,926	5,566	7,325	23,361	△7,354	(△31.5%)
(매출比)	(14.6%)	(15.8%)	(18.2%)	(22.3%)	(18.1%)	(17.8%)	(17.9%)	(22.6%)	(24.5%)	(20.7%)	(△2.5%)	
당기순이익	2,217	2,936	3,372	5,236	13,761	4,480	3,975	4,500	5,748	18,703	△4,942	(△26.4%)
(매출比)	(11.9%)	(13.1%)	(17.6%)	(18.7%)	(15.6%)	(14.4%)	(14.5%)	(18.3%)	(19.3%)	(16.5%)	(△1.0%)	

주) 2017년 1분기 경영실적에는 분할전회사에서 발생한 2017년 1~2월 네트워크사업부문의 경영실적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 사업에의 집중투자
- ▣ 독립적인 경영 및 책임 경영 강화



▣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 1)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및 투자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기업가치 제고
- 2) 주된 영업자산(네트워크)과 비영업자산(현금성)의 분리를 통한 재상장으로 주주가치 제고
(**분할회사의 Valuation 상승**에 따른 시장 재평가로 향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
- 3) 물적분할로 현물출자 없이도 지주회사 요건 충족으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모두 상장유지**

▣ 지배구조 개선

- 1) **각 해당사업에 집중**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 확립
- 2)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 성장잠재력 확보, 경영위험의 분산** 추구

▣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 1) 과거 수년간 글로벌 네트워크 관련 업계는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종연횡 중
- 2) 분할 전 유비쿼스는 사업규모 대비 금융자산 규모가 커서, **분할전 구조로는 전략적 투자유치, 자본제휴 등이 어려운 상황**
- 3) 네트워크사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자본과 연계한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회사 분할 | 분할전후 계열회사 현황



회사명	사업부문	내용
(주)유비쿼스홀딩스	지주사업	자회사 관리, 경영컨설팅, 임대수익 등
(주)유비쿼스	네트워크사업	국내 및 해외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 생산, 판매, 유지보수
(주)유비쿼스이앤엠	E&M사업	신규사업 및 M&A
(주)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신기술금융업	기관투자자 업무 영위 (투자조합 결성 및 사모펀드 운영 등)
Ubiquoss USA, LLC	Technical Support	미국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Our company has a dream and vision of **Global Small Giants** beyond **All IP Convergence**

유비쿼스는 2000년 설립 이후 네트워크 장비 산업군에서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성장하였습니다. VDSL2 솔루션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 통신 시대를 열었으며, FTTH 솔루션을 통하여 Giga급 서비스를 가능케 하였고 향후 10Giga 서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Mobile Backhaul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였고, 4G LTE 서비스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우리 유비쿼스 임직원 모두는 All IP Convergence 라는 꿈을 실현하여 왔습니다. 오랜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통신이 점차 IP로 통합되고 있으며, 모든 사물에 IP가 할당되어 서로간 네트워킹이 가능한 환경을 점차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비쿼스는 지금까지 일구어 낸 많은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보다 세계시장에서 큰 가치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윤리경영, 고객중심의 사고,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Global 강소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유비쿼스 임직원 일동